

라운아띠

5개월,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14기 캄보디아팀 Meut Laor :)
2015. 09. 03. – 2016. 02. 01

CONTENTS

제 1장. 소개

제 2장. YDP

제 3장. CDP

제 4장. 아토택제나

마치는 말. 우리들의 이야기



제 1장. 소개

우덤. 김종원

뿌 우덤

현지음식을 잘 못 먹어 종종 굶기도
하지만 달달바게트와 사랑에 빠짐

관달 축구계의 골목대장

장난기 많고 사교성이 좋다.
가끔씩 찾아오는 가라앉음 조심

재무담당. 길담당. 흥정계의 왕자.
“먹어 먹어”
“에헤이~ 모이 돌아 뿌람 깍?”

회의할 때 특유의 미간 찌푸리기



뽀냐. 김한길

뽀 뽀냐하

요리에 물이 오름
“오늘은 또 뭘 해먹냐”

맞는 말을 자주 함

아이들을 좋아함. 아빠미소
1등 아빠감..?

글을 잘 씀
짤프리아의 글자판기



나래, 서나래



티쳐 나리?나래?

영어를 담당, 영어수업 메인 티쳐

꼬까 모이

쇼핑쇼핑쇼핑
“빨리 예쁘다고 말해”

더위와 배고픔을 참지 못함

강아지를 사랑함

요즘 자전거 산책에 맞을 들임

“나도 갈래”

짠뜨리아. 정다솔

뽀뜨리아, 킁꾸어, 밍 짠뜨리아 ↻

간달팀 전속 사진기사 ←

↻ 카페 따꺼뜨꺼, 고구마튀김, 바나나튀김, 김 쉐프의 거의 모든 요리를 사랑함

↻ 막내를 담당
오빠들과 마을 아이들의 만만함을 담당

↻ 나는 말하기는 영어보다 크메르어를 더 잘 하는 것 같애..

↻ 아이들을 좋아함

↻ 여기 좀 더 있고 싶다...



제 2장. YDP (Youth Development Program)

영 어 나라

일 주 일 에 두 번 ,
 처음에는 유스들만을 대상으로 했으
 나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마을
 에서도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영어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언어
 였고 쉽게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
 다 .



아띠 클래스

영 어



영 어

유스와 마을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
부족한 학생 수



피드백



고민

학생 별 수준차이

문법 vs 회화

재미 vs 학습

한국어 다슬, 한길

일 주 일 에 한 번 ,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
는 유스들을 대상으로 문
화 교류 겸 한국어를 가르
치기 위한 수업으로 회화
위 주로 진행 했다 .



아띠 클래스

한국어 다솜, 한길



피드백

고민

수업의 구성과
진행방식

일방적 전달

필요성,
그리고 목적의식

수요조사 부족

영 화 종원, 한길

매 주 금 요 일 ,
극장을 찾기 힘든 유스들과 함께 문
화 생활을 즐기고자 했다.



Man In Black / Avengers / Incidjous / Real Steal / Columbiána

아띠 클래스

영화 종원, 한길



영화 종원, 한길



피드백

많은 유스들의 참여
크메르어 더빙 영화

마을 아이들 한길, 다솔, 종원

우리가 떠난 뒤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를 알려 주자. 아니, 그냥 재밌게 놀자!



아띠 클래스

마을 아이들 한길, 다솔, 종원



아띠 클래스

마을 아이들 한길, 다솔, 종원

우리 집에 찾아온다.

아이들의 놀이



피드백



고민

가르쳐줘야 하나?
지속성. 안전.
다른 마을 아이들

너무 성급한, 서툰 시작

듣기 vs 결단

진짜, 유스들이 원하는 수업

수업의 지속성?

쿠킹 클래스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친교를 다짐.



김치전&계란말이_9월

떡꼬치_12월



김밥_10월



잔치국수_11월

쿠킹 클래스



쿠킹 클래스

매 달 마지막
예산부족



피드백



고민

많은 인원
현지재료 활용부족
함께 먹는 것
&
함께 만드는 것

I F S

(Intigrate Farming System)

CDP 활동과 관련해 하이드로포닉, 지렁이 집짓기 등 농사와 연관된 일을 미리 해 봄.



마늘심기

CD반 유스들과 땅을 일구고
마늘을 심었다.



수경재배

엉팜, 비료, 싹이 난 상추를 심기



지렁이 집

지렁이 배설물=근처 농작물의 비료,
지렁이=물고기 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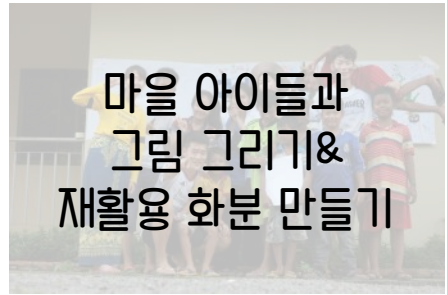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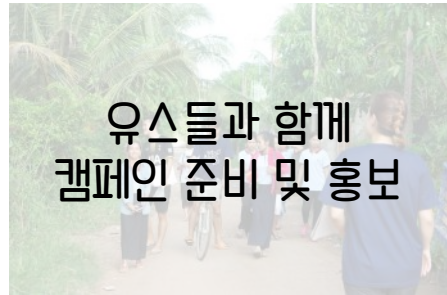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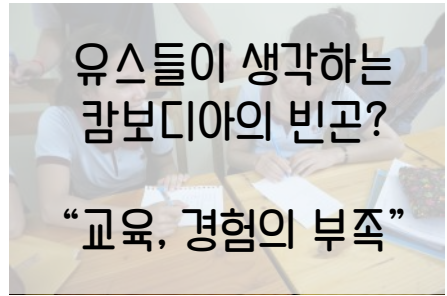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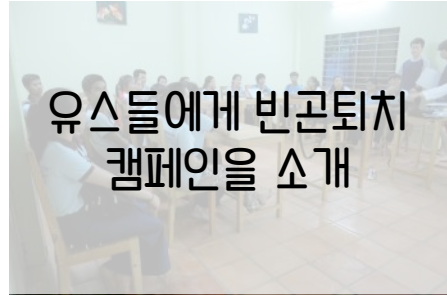
IFS에 대한 이해부족
정해지지 않은 활동일정



활용에 대한 의문
아띠들의 적극성 부족

빈곤퇴치 캠페인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빈곤을 나누고 다시 한 번 빈곤에 대해 생각해봅.



피드백

유스들이 생각한 빈곤 참여 부족 마을 홍보 부족



유스들과 함께 만드는 캠페인?

지속성

고민



Burning Stove 만들기

페인팅 반 학생들과 친해짐

아이들의 소각장에 대한 이해부족

크메르어 수업

전체 수업의 횡수 부족



With Youth ☺

National Caritas 방문

2015년 10월 6일



제 3장. CDP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회의



IDE 시범



뿌 적



1. 밭을 간다.



2. 이랑과 고랑을 낸다.



3. 근처에서 살충에 좋은 풀을 본다.



4. 풀을 자른다.



5. 씨를 뿌린다.



6. 살충제를 뿌린다.



7. 볏짚을 덮는다.

뽕 뽕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고랑



살충제를 뿌리고



물관을 놓고



그 위에 비닐을 덮고



수도관을 연결했다.



피드백

IDE 회의 각각에 대한 이해, 전체 회의가 진행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
 품에 들어가서 잠시나마 농부님과 함께 생활한 게 좋았다.

한 농부님 집에 오래있어 더 친해진 것 같은 동시에 더 많은 농부님과 일하지
 못해 아쉽다.



피드백

담당 스텝분의 일정때문에 우리끼리 품에 가지 못해서 아쉬웠다.
CDP와 YDP 스케줄이 가리따스 내에서 공유되지 못함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는 게 피해를 끼치는 것일 수 있다.

제 4장. 아토제나



2016. 01. 10~ 01. 17

수원 YMCA, 청소년해외봉사캠프, 뜨리아 학교

청소년들이 '봉사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편적 고정관념인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해소하고 이 곳에서 많이 배우가길 바람.



2016. 01. 10~ 01. 17

수원 YMCA, 청소년해외봉사캠프

텃밭 만들기
놀이터 만들기
쿠킹 클래스



피드백

학교에 갔기 때문에 마을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김밥을 나눠주는 방식이 불편했다.

기존 아티활동에서 하지 않는 학교에서의 활동이 좋았다.

2016. 01. 10~ 01. 17

수원 YMCA, 청소년해외봉사캠프

위생교육
손 씻기 & 양치하기



피드백

일회성 활동보다 앞으로도 계속 활용해 쓸
일 수 있고 학교에서 다시 해 볼 수 있는 활
동들이 더 좋다.

위생교육, 지속성을 위해 교육자료를 드리고 왔으면
좋았을 듯.

비용과 물품의 적절성 간의 고려

2016. 01. 10~ 01. 17

수원 YMCA, 청소년해외봉사캠프

RaomAtti



고민

지속성있고 현지와 함께 교류하는 활동

학교 선정, 우리의 필요가 큰 학교 vs 우리의 능력안
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은 학교

이 단어가 적절한가?

마지막 장. 우리들의 이야기

그대와 함께였기에 뜨거웠던,
라온아띠.
고맙습니다.

KB *b RaonAtti

 Caritas
CAMBODIA

 YMCA

